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병원,
이정환 내과

기획특집
감동을 주는 신앙인
"춘천시 제1호 민간정원 '남이섬' 현판식"의 의미
숨(O breath)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맛집 같은 교회
영화이야기 지저스 레볼루션 JESUS REVOLUTION
명화 감상 제3회 춘천기독아동미술대회
건강 가을철 과일 감
책속의 책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

254
Autumn 2024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03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병원, 이정환 내과 | 최상도 목사

기획특집

05 감동을 주는 신앙인 | 이연희 목사

08 "춘천시 제1호 민간정원 '남이섬' 현판식"의 의미 | 박익수 집사

10 숨(O breath) | 이영규 목사

13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 이서환 지부장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15 맛 기행 예수의 미소 | 이관형 권사

17 영화이야기 지저스 레볼루션 | 김춘배 화백

19 제3회 춘천기독아동미술대회

21 건강 가을철 과일 감 | 이시형 원장

22 책 소개 책속의 책 | 박도준 목사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후원 참여

신협 131-005-937566(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병원, 이정환 내과

최상도 목사
(사암교회, 성시신문편집장)



춘천 동내면(학곡리)에 위치한 한 내과병원이 춘천교계뿐만이 아니라 강원기독교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8월, 신앙공동체병원을 표방하며 개업한 《이정환내과》가 바로 그곳이다. 의료진은 이정환 안수집사(원장), 이명자 권사(간호사), 안경민 집사(간호사), 김윤진 집사(상담실장)로 한 팀을 이루고 있다. 이정환 안수집사는 내과 전문의로 그동안 전국 여러 중요 병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였으며, 내시경 검진 등을 3천회 이상 실시한 베테랑 내과의사이다.

처음엔 주님을 몰랐던 이정환 안수집사는 부인 김윤진 집사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분당에 위치한 한 크리스천 고아 브라스밴드를 돕는 일로 만난 두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깊이 있게 헌신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서울 할렐루야교회(김상복 원로목사)에 출석하며 신앙의 연륜을 쌓아갔고, 여러 지역을 거쳐 춘천에 정착한 후로는 해외선교 지원사역과 춘천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의료혜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정환내과》는 매일 아침 환우들을 대하기 전에 전 직원이 하나님말씀을 같이 묵상(큐티)하고 기

도함으로 시작한다. 환우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기도해도 좋은지를 묻고, 괜찮다고 응답하는 환우들을 대상으로 영육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한다.

이정환 안수집사는 의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발병 이후보다 예방 의료의 중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정환내과》는 방문 진료 및 의료협동조합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 편에 서셨다. 또한, 직접 환우들을 찾아가 대면하기를 즐겨하셨다. 이에 이정환 안수집사는 직접 환우들을 가정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GRAND **OPEN**

이정환내과

내과진료상담 / 암·면역수액 / 감기수액

통증수액 / 만성질환관리 / 예방접종

월~수, 금 AM 9시- PM 7시 **목, 토** AM 9시- PM 1시 **야간진료** PM 6시- PM 7시

희곡농협입구 2층 033-263-8899

감동을 주는 신앙인

김화숙 권사 / 춘천마마클럽 대표(순복음춘천교회 권사)

이연희 목사(아미교회, 성시신문편집위원)





앞줄 왼쪽 세 번째 사진 이화숙 권사님

"권사님 지금 어디세요?"

"식당 담당 권사님이 아프셔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르다처럼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섬긴다는 마마클럽의 춘천대표이신 김 권사님은 맞벌이 시대, 패스트푸드 시대, 외식을 즐기는 시대에 내 집 부엌 살림하듯이 교회에서 봉사하신다.

1. 기도의 열매로 헌신하는 마마클럽 춘천대표

시부모님들께서 세상을 떠나고 집을 이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살기를 기도하셨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 때 마마클럽을 소개받았고, 기쁘기도 하였지만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여 순종하게 되었다고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던 일이,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사역을 통해 또 다른 세계

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다음세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셨다. 매달 한 번씩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헌신의 광장이다.

춘천 마마클럽을 발족한 지 2년 남짓 되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데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신다고 하셨다.

강원도에는 춘천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데, 강릉과 원주지역 등 강원도 전역에 기도하는 어머니 군대를 일으키고자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더욱 감사한 일은 일본 선교 중에 만난 천안 권사님께 소개한 마마클럽기도회가 천안지역 마마클럽 지부를 시작하려고 마중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다.

2. 거절할 줄 모르는 섬김의 달인

주의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김 권사님

“짜증 내고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요.” 권사님은 봉사하는 일에 어떤 수고도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신다고 하셨다.

뇌경색이 와서 수술실을 출입해야 할 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의 생명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찬송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찬송을 늘 되새기며, 묵상하며 헌신을 다짐하신다고 한다. 작은 빈틈조차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일, 교회봉사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려는 자세로 날마다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하셨다.

교구를 돌보는 일, 여전도회 섬기는 일, 총여선교회장을 맡아서 하는 일, 7~80여 명의 식사를 섬기는 일에도 주저 없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있다.

내 집 식구 밥 세 끼 준비하기도 쉽지 않고, 바쁜 시절에 수많은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고, 챙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권사님의 신앙고백이요, 노래의 한 장면이다. 아이들이 맛있다고 먹는 것을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셨다.

몸에 잘 맞는 옷처럼 자연스런 교회 봉사 섬김이로 하루하루 금쪽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일

년도 쉽지 않은 봉사를 수일처럼 여기며 70을 훌쩍 넘기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여전도회 임원과 회장, 총여전도회 회장까지 계속하여 맡아 섬기고 있다.

3. 부부가 같은 마음 같은 비전, 한 방향으로의 헌신과 섬김

한 이불을 덮고 자도 한마음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김 권사님 부부는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의 정절을 지킬 뿐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동일한 비전으로 동일한 훈련을 받고, 함께 섬기는 참으로 귀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선교훈련도 같이 받고, 교회봉사도 함께하고, 비전스쿨까지 동일한 사역에 주일뿐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같이 헌신하고 있다

김 권사님은 말씀하시길 "같이 훈련받고, 같이 봉사해야 소통도 되고, 대화도 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중적이지 않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요, 모토로 삼는다."고 하셨다.

선교한국에서 실시하는 PSP 훈련과정을 함께 수료하고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린 후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함께 선교지를 20여 년째 다니며 교회봉사와 선교하는 일에도 남편 장로님과 함께 달리는 중이라 하셨다.

벌써 70대를 진입하는 세월 속에 무엇을 할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밖에 없다고 하셨다. 빠른 세월 앞에 부부가 함께 헌신과 봉사에 매진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고 하셨다

2021년 받은 말씀인 출 19장 5~6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갈 6장 9~10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교회 봉사에 임하고 있다고 하셨다.

1993년 성령체험 후 받은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을 찬송가에 표시해 두고 부르며 날마다 헌신을 다짐하고 2004년 수술실에 들어가며 받은 찬송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찬송을 즐겨 부르신다고 하셨다.

남은 생애를 복음의 빚을 갚고자 즐겨 헌신하시는 귀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섬기시는 춘천마마클럽 기도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제1호 민간정원 ‘남이섬’ 현판식”의 의미

박익수 집사
(예담교회, 성시신문편집위원)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하였다. 에덴동산(garden)의 원의는 물이 잘 공급되는 장소라고 한다. 그곳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곳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2024년 8월 21일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정원인 춘천 남이섬에서 “춘천시 제1호 민간정원 ‘남이섬’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프랑스 장 지오노 작가의 단편소설『나무를 심은 사람』의 주인공 양치기 노인 엘제아르 부피에는 북부 프랑스 황무지에 조그만 자루에 도토리를 담아 와서 어제처럼 흔들림 없이 정성스레 도토리를 심었다. 1910년경에는 그가 심은 도토리는 상수리나무로 자라 어느덧 자신의 키보다 더 높이 자라 있었다. 말라버린 사막이었던 그곳에 샘물이 생기고 도랑물이 흐르고 나무가 우거진 숲이 되어 마침내 큰 동산이 되었다. 이로 인해 주변 마을도 활기를 되찾게 된 곳이다. 수십 년이 더 지난 후에는 이곳은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기계의 도움 없이 순전히 한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근래 나는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이섬을 설립한 민병도 님과 천리포 수목원을 설립한 민병갈 님이 바로 양치기 노인 엘제아르 부피에와 견줄 수 있는 우리의 사례이다. 민병도 님은 한국은행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깊은 우의를 나누고 있던 외국인 동료 민병갈과 형제의 인연을 맺었다. 자신은 1962년부터 춘천에서도 오지인 남이섬을 매입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민병갈 님은 천리포 해변 황무지에 나무를 심었다. 그들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남이섬과 천리포 해변에 나무를 심었다. 그리하여 지금 그 두 곳은 모두 수많은 방문객에게 커다란 위안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천리포 수목원도 이미 유명해졌지만, 특히 남이섬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연중 삼백만 명이나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이처럼 유서 깊고 의미심장한 공간인 남이섬에서 "춘천시 제1호 민간정원 '남이섬' 현판식" 거행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뜻깊은 행사라 할 것이다.

현대에도 많은 정원들은 에덴동산의 의미와 이미지를 함의한 경우가 많으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정원에는 자연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는다는 개념이 응축되어 있으며, 에덴의 상징성을 반영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행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맡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바로 볼 수 있다. 에덴동산에서 인간은 정원을 돌보는 임무를 받았는데 이는 춘천시의 정원 관리와 자연 보호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이처럼 에덴동산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과 인간의 완전한 조화를 나타내는 최초의 정원으로, 그 개념은 현대에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수도권의 상수원 공급을 담당하는 춘천에서는 친환경적인 생태 환경산업을 발전시켜 국가호수 정원을 조성하고 시민 정원사들을 양성하여 춘천 전역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역시 성경에서 말한 정원과 정원사의 의미를 고스란히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춘천이 거룩한 성시의 정원이 되기를 기도하며!

숨(0 breath)

이영규 목사
(신북성결교회, 성시신문편집위원)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거점으로 삼고 러시아에서(유럽, 미주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3월 19일, 4월 16일, 5월 6일, 5월 18일, 보이스톡 페이스톡이 오더니, 5월 18일 깊은 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6월 19일부터 7월 3일 일정으로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동유럽의 대표적 국가인 불가리아를 탐방하고 하나님께서 동유럽을 중심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함께 영광을 올려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갑자기 말입니다. 바로 그 밤 터키항공에 들어가 소피아 가는 비행기 값을 지불했습니다. 인도, 중국, 필리핀, 러시아, 태국 등지에서 동역했던 황석호 집사님을 부르고(집사님은 전립선암으로 인한 오줌주머니를 차고, 이후엔 기구를 삽입하였지만 이젠 그 기구도 유통기간이 다 됐는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줄줄 흐르지만, 그 몸으로 선교지를 다녔고, 다녀온 후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와서 아직도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답니다. 어리석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과 씨름하는 목사님을 불러(이전 호의 태국에 함께 했고, 선교사로의 부르심 같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의 후임으로 가게 하셨답니다.)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북서쪽으로 몇 시간 떨어진 롬(Лом, Lom)이었습니다. 며칠 지난 주일에 그 도시 롬에 학교에서 배운, 영화에서 본 도나우강(그들은 두나이강이라고 발음했던 것 같습니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노역(?)할 곳은 그 도시 롬에서도 한 시간은 족히 넘는 고르니 롬(Горни Лом)의 집시(Gypsy,

Romani people) 교회입니다. 이번 사역지는 모두 집시 교회였습니다. (시나이교회-일리야 목사 (집시 교회 총회장) 크리보이바르교회- 랑겔 목사, 브레스닛짜교회-발랴 목사, 고르니 롬교회-뺏뜨꼬 목사)

집시, 도나우강, 불가리아 불가리스(광고), 소피아, 어떤가요? 불가리아가 낯선 곳은 적어도 아니죠.^^ 그러나 우린 낯선? 노역(두 주 안에 예배당을 지어줘야 하기에 비가 와도, 저녁을 넘는 시간에도 일을 함)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두 번의 주일은 우리에게 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는 엄청 더웠고(춘천의 더위와 추위에 단련이 된 나도), 음식(현지인 집시들이 먹는 음식)이 저한테는 버거웠고, 우리는 음식으로 심하게 고생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고 선교한다며 그래도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음식을 먹어 봐 음식으로 힘들어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엔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처넣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센가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티가 났을 것입니다. 이번 선교는 꽝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 주지 못했으니까요. 롬에서 고르니 롬으로 왔다 갔다 하며 본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넓은 들판, 거기엔 밀은 이미 추수되었고- 밀 낱알을 차로 실어 가는데 트럭에서 떨어지는 양이 상당했었습니다. 제 말로 아까워 죽겠었습니다.^^ 아직 베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해바라기가 피어 있었고 옥수수는 다 자라 있었고 푸른 초장엔 양 떼들이 노닐고, 목가적이었지만 너무 힘들어 감성적인 내가 낭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얘기를 확 뛰어볼까요?

전 유럽에 약 1,200만 명 이상(이 숫자도 들은 거라 틀릴 수 있습니다.)의 가장 광범위한 디아스포라(Diaspora / διασπορά)를 갖고 있는 집시(중앙아시아에도 있고 심지어 미국에도 있지만), 숫자 말고 흩어진 우리 민족과 비슷하죠. 우린 집시보단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든 안 믿든 유대인 민족과 비교하길 좋아하겠지만요^^ 이 집시들이 유럽인들 복음화에 앞장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벌써 생각나는 말씀은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전 1:26-31) 이 구절을 익히 알기에 어쩜 이 말씀을 패스하고 아래를 읽게 될지 모르지만 제 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니 읽어보세요.^^ 더 나아가 브레이크를 걸고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시지요? 앞의 집사님의 행동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가 그렇잖아요.(고전 1:18-25)

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 헝가리가 공산화가 되었고 루마니아와 체코슬로바키아도 그 뒤를 따랐고 동독,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가 소련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 아래 놓임으로 동유럽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잃지 않아 1991년 소련이 붕괴가 되자 유럽에 연합됨으로 밤이 깊던 서유럽교회를 일깨우고 특히 어디서나 항상 천대받던 집시들을 통해 유럽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택하여 부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세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집시들을 섬기고 아니 만나고 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죠.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전 유럽을 자유롭게 돈 벌러 가면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는 있고, 동유럽과 전 유럽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집시 민족들 가운데 교회 부흥을 통한 유럽 재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허탄한 생각에 빠질까 염려됩니다.(약 4:13-17, 마음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곁가지를 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을 통해서 약 1,500만 명 이상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는데 복음적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유럽의 모슬렘화를 저지하고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 굿네이버스 기후위기 특별기획 캠페인 '좋은이웃나무'

이서환 지부장(굿네이버스 강원지부 지부장)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1:31)



에티오피아 식목 행사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 후 심히 좋았던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삶과 생계가 무너지고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일수록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불평등을 더 많이 체감하게 됩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심각한 가뭄, 엘니뇨로 인한 홍수 등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위기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수 많은 산의 황폐화를 겪으며 많은 산이 민둥산으로 변하면서 산사태나 토지유실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에티오피아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에티오피아 도도타, 지웨이둑다에 위치한 한 마을에 지역 정부와 주민들과 함께 일주일 간의 식목행사를 통해 5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 식목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약 2,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바쁘지만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5만 그루를 앞으로도 잘 지키겠습니다 (Ljarao Wario – 마을 부이장)"



에티오피아 기후위기 사진

춘천과 에티오피아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최정예 부대인 강뉴(Kagnew)부대는 춘천과 철원 일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로부터 74년이 흐른 지금,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춘천의 아이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굿네이버스 기후위기 특별기획 캠페인 '좋은이웃나무'를 통해 춘천 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좋은이웃나무 결연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제안하고 에티오피아 기후위기 취약계층 아동과의 일대일 후원 결연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로 어려움에 놓인 에티오피아 아동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고 계신 성도님은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성도님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좋은이웃나무 현판(춘천 공지천)

[캠페인 참여문의] 본 캠페인은 춘천시 내 개인과 단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하단의 QR코드를 통한 후원 신청 시 캠페인 신청 완료됩니다. (굿네이버스 강원지부 033-256-5391)

맛집 같은 교회

이관형 권사(맛집기행가, 성시신문편집위원)

필자는 매주 주일 저녁에 90을 바라보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식당이 있으니 스무숲 먹자골목 숯불구이 전문점 태평소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메인인 이 음식점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춘천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손님들 입장에선 가성비와 만족도가 높은 음식점으로 현재 본점을 포함하여 4호점이 있다.

요즘 경기가 코로나 시즌보다 더 나쁘다고는 하지만, 이곳 태평소는 4개월 전에 개업한 우두동 4호점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만큼 잘 되고, 특히 주변에 제아무리 유명한 프렌차이즈 고깃집이 들어서도 매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니 단골인 내 입장에선 여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곳 사장님(종업원)은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함은 물론 백반집이 아님에도 기본 밑반찬 9가지가 정갈하고 맛깔스러워 주메뉴인 고기가 없어도 그냥 칼칼한 된장찌개만으로도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점심 때 따뜻한 국물의 찌개나 국에 생선구이를 더한 한식 백반을 권하고 싶다. 하지만 백반집 컨셉은 매일 반찬을 바꿔야 하기에 손이 많이 갈 것이라 힘들 것이다.

필자는 그다지 글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지에 자칭 맛 기행 글을 쓴 지가 벌써 16년째 접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맛집 소개와 음식점 창업에 관해 달인이 아닌가 싶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특히 잘되는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고 물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양념을 아끼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 식당이 잘되는 식당이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다들 우스갯소리로 '미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답은 사장님(종업원)의 미소다.

직업상? 인사성이 너무 좋은 필자는 음식점을 갈 때마다 다음과 같이 감사 표현

3종을 꼭 한다.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꼭 드린다.

이에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셨어요?' 라는 추임새를 해주면 좋으련만 의외로 묵묵부답인 사장님(종업원)이 많다. 이런 경우에 내가 또 쓸데없이 괜한 오지랖을 부렸구나 하는 어색함과 서운함을 넘어 주문한 음식 맛도 별로라 느껴지며 혹시 음식 재료를 너무 아낀 게 아닌지? 심지어 반찬을 재활용하지나 않았는지 젓가락으로 뒤적여보고 벽에 걸린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가 국산이라고 적혀있지만, 혹시 수입산이 아닌가 하는 별 오만가지 시험에 들 때가 있다.

아울러 필자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라도 대기가 길면 시간이 아까워서 가지도 않지만, 특히 종업원이나 사장이 불친절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앞으로 갈 생각이 싹 사라지고, 심지어 그곳에서 누가 식사 대접을 해 준다고 해도 사양하게 된다.

춘천은 좁은 동네이기에 음식점 창업이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소문 때문에 성패가 빠르게 결정된다. 특히 음식점은 타업종과는 달리 백반집, 돈가스점, 중국집을 제외하곤 3개월 이란 개업발 동안에도 손님이 없으면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춘천 사람들은 전국에서 입맛이 제일 까다롭고 가성비 또한 너무 많이 따진다고 한다. 그래서 그럴까? 음식 프랜차이즈 특히 분식점과 포항 과메기, 안동 찜닭, 목포 삼합 등의 유명한 지방 음식과 고깃집은 여간해선 이곳 춘천에서 발붙이기가 힘들다.

아울러 성구액자를 걸어놓고 운영하는 교인분들의 식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과 신뢰가 가게끔 음식 맛은 물론 인사성도 밝고 식당 내부는 물론 조리실도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 전도는 물 건너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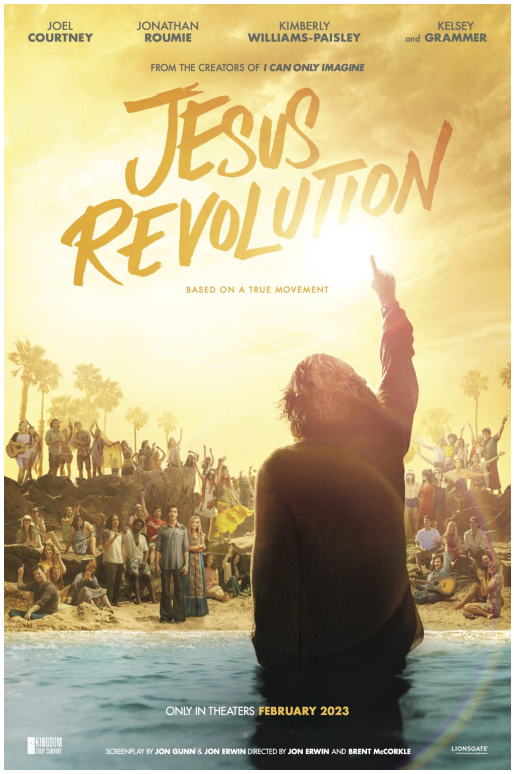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롬 2:24)

목사님은 매주 주일에 우리에게 설교라는 밥상, 언제 먹어도 맛과 영양을 다 담은 집밥 같은 든든한 한 끼의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신다. 우리는 그 밥상으로 때에 따라선 일주일을 견디어야 한다. 하지만 매주 차려주시는 밥상이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이면 싫증이 나서 외식하고 싶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감동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상차림이면 마치 비빔밥에 고추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본다.

그 어느 해 보다 폭염으로 길고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반갑고 감사한 계절이 찾아왔다. 이 좋은 계절에 목사님과 교우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교인이 운영하는 건강한 맛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보자. 이 또한 성도의 사명이다.

지저스 레볼루션 JESUS REVOLUTION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1970년대 미국 근대사에 태동한 히피 문화.. 윤리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문화에 정면으로 충돌할 문화적 충격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필자도 얼른 적응하기 힘든 그런 문화이며 생태였다. 마약과 섹스에 대한 자유분방한 노출로 히피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히피 문화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에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화가 나왔는데, 넷플릭스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선풍을 일으키기도 한 영화 〈지저스 레볼루션〉!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최고 인기 영화 4위에 올랐다고 크리스찬 헤드라인스는 전했다. 이번 성과는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며 할리우드 관객들을 놀라게 한 지 5개월에 다시 빚어낸 결실이었다.

이 영화는 히피 전도사 로니 프리스비(조나단 루미)의 실제 이야기를 따라간다. 그는 목사 척 스미스(켈시 그래머)와 힘을 합쳐 히피 무리를 그리스도로 이끈다. 이 운동을 통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10대들 중 한 명이 로리 목사(조엘 코트니)였다.

미국 기독교영화계의 선두주자인 프로듀서 앤디 어윈(Andy Erwin)은 크리스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프리스비와 스미스에 대해 “하나님은 이들을 불쏘시개로 쓰셨으며”, 그리고 척은 “히피들을 교회에 들여보낸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에이즈로 사망한 프리스비가 “엉망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어윈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다”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 누구라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찬타임스)

작년 2023년 20주년을 맞이하며 이화여자고등학교 백주년기념관 화암홀에서 열린 서울국제아가페영화제(Seoul International Agape Film Festival)의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어윈 브라더스가 연출한 영화로 올해 부활절을 맞아 개봉한 작품으로, 영화 관람객들로부터 A+ 시네마 스코어 등급을 받았다. 공동 감독인 존 어윈은 그가 감독한 3개의 영화 우드론 (2015), 아이 캔 온리 이매진 (2018), 그리고 아메리칸 언더독 (2021)이 A+ 시네마 스코어를 기록하며 만점을 받아, 4개의 영화로 만점을 기록한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며 체제를 거부하는 젊은 히피들이 늘어나던 시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척은 교회에 젊은 세대가 사라지는 걸 걱정하던 차,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청년 로니를 만나게 되는데 로니를 경계하던 척은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고, 로니의 제안에 따라 히피들을 교회에 받아들이게 된다.



영화 〈지저스 레볼루션〉은 1970년대 히피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적 부흥운동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수많은 청년 히피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세례를 받으며 일어난 부흥운동은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번지게 된다. 세속적으로 보이는 낯선 청년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존 교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조현기 프로그래머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옛것을 고수하려고만 하지 말고 새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가 특히 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히피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같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갈수록 세대격차도 커지고 각각의 세계관이 넘치는 우리시대 이러한 부흥 운동은 한번쯤 돌이켜 보암직하지 않을까 싶다.

제3회 춘천기독아동미술대회

이관형 권사(미술대회 심사위원장)

2024년 52주년 춘천성시선교대회를 앞두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기독교연합회, 강원기독교미술인협회, 춘천자연유치원의 후원으로 올해 20년 만에 제3회 춘천기독아동미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출품작 총 57점에서

대상(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상) 노윤민(역동적인그리스도의교회/ 초등 5년)

최우수상(춘천기독교연합회장상) 김예람(효신장로교회/ 초등 6년)

우수상(춘천기독교연합회장상) 신주아(푸른성결교회/ 초등 4년) 지찬욱(석사감리교회/ 초등 1년)

금상(강원특별자치도기독교미술인협회 회장상) 김도훈(동성교회/ 초등 3년) 외 총 40점이 입상,

시상식은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17명을 시상식에 초대, 8월 31일(토) 온누리교회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대 상 노 윤 민 (초등5년) / 제목: 윤민이의 교회 / 출석교회: 역동적인스리스도의 교회

현재 저는 수많은 미술대회 심사를 맡고 있어 매년마다 수천여점이 넘는 작품을 심사하면서 마음속 깊이 안타까웠던 점은 미술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표현할 마땅한 미술대회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점에서 이번 대회는 무척이나 의미있는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이번 공모전에 참여케 해주신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수상 내역에 상관없이 입선작부터 대상까지 수상자 모두 축하드리며 내년에도 많은 후원을 받아 미술대회가 꼭 성사되길 기도드립니다.





가을철 과일 감

이시형 원장(이시형한의원)

너무나도 더웠던 여름 한더위가 가고 차츰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어 가을을 느끼게 한다. 이번 여름은 너무나도 더웠기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 여름이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감나무에 감이 녹색에서 점점 황색으로 변하면서 감나무의 가지들이 늘어지게 된다.

감은 감나무에서 나는 과실인데 떫은 감과 단감으로 구분된다. 재래종은 거의 모두가 떫은 감이다. 떫은 맛은 감에 함유된 탄닌 성분으로 인한 것인데 떫은 감은 수용성 탄닌, 단감은 불용성 탄닌 성분으로 구분한다.

동의보감에서는 감은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독은 없다고 한다. 심장과 폐를 적셔주며 갈증을 멈추고 심장의 열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이는 스코폴레틴 성분이 들어 있어 몸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몸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술독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는 비타민A.C,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알코올을 분해하는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갈증을 멈추게 하고 지혈작용으로 피를 토하는데 사용되었다. 그 외 설사를 멎게 하고 배탈을 멎게한다.

볕에 말리게 되면 곶감이 되는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오래된 식체를 삭히고 얼굴에 난 주근깨를 없애며 어혈을 제거하고 목소리를 곱게 한다고 한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면 물에 담갔다가 늘 먹어야 한다고 한다. 쌀가루에 곶감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이면 가을에 생기는 이질을 치료한다. 곶감 표면의 흰 가루는 포도당, 과당으로 건조에 의해 농축된 당액이 마지막에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여 결정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무방하다.

단감을 먹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데 떫은 맛을 내는 탄닌 때문이며 떫지 않은 감을 먹게 되면 변비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감꼭지는 딸꾹질에 쓰이는 처방에 주된 약재이기도 하다.

감나무의 나뭇잎은 성질이 차고 맛이 쓴데 혈압,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관상동맥을 넓게 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그래서 고혈압과 심장병, 동맥경화증의 예방에도 사용된다. 감잎차는 하루에 3-9g을 뜨거운 물에 2-3분 정도 넣었다가 여러 번 우려내어 마신다.

동의보감에서 게와 같이 먹으면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한다고 하니 주의를 바란다.

〈참조 : 체질따라 약이 되는 음식224, 메디업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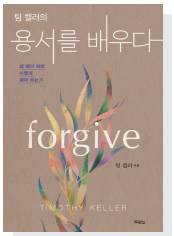


책속의 책

박도준 목사(하늘뜻이룸교회, 글 익는 마을 독서모임)

〈글 익는 마을 : 예수교장로연합회 통합 소속 춘천지역 목회자 5명이 매달 1권씩 선정된 책을 읽고 발제하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 팀 켈러 지음 / 윤종석 옮김 / 두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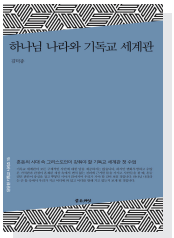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는 우리에게 용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용서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품은 원한은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반면에, 진정한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더 나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갖게 합니다.

책에서는 용서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용서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 불가능한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는 용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도록 돕는 훌륭한 안내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 / 김덕종 지음 / 좋은씨앗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핵심인 두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을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창조부터 구속까지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탁월한 점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 / 러셀 로버츠 지음 / 이지연 옮김 / 세계사



이 책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답이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특히 '결정'이 아닌 '실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원칙'을 중심에 두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애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정답을 찾는 퀴즈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유익한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흥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곽복연 곽혜옥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채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상화 김생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웅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복 김종숙 김종옥 김종익 김종찬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춘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명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정원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춘학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손갑수 송근영 손미화 손수정 손영인 손정심 손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온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증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염정원 오성남 오성예 오소연 오제영 오흥금 오흥수
용애중 용영욱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흥묵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림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숙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헌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쌍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치웅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윤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옥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한은희 한명수
한성우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선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흠 황변구

후원교회

갈릴리감리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신성감리교회 주의숲교회 춘천예담교회 하늘기쁨교회
강변제일성결교회 새춘천성결교회 아미교회 주찬양교회 춘천온누리교회 하늘평안교회
강원침례교회 석사감리교회 암스트롱병원교회 주향교회 춘천우리교회 한빛교회
거성침례교회 소양감리교회 엠마오교회 초대교회 춘천은평교회 한울섬김교회
그말씀양문교회 소양성결교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축복교회 춘천은혜장로교회 화목교회
나눔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예담장로교회 춘천광명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효신장로교회
더좋은순복음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예사랑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장로교회 효자감리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예수촌교회 춘천광장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후평제일교회
밝은빛장로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사랑의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우두감리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침례교회
사암성결교회 쉼이있는교회 임마누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평화교회
산솔교회 신북교회 제자감리교회 춘천성광교회 평성성결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명단(단체)이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 : 신협 131-005-937566(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등록번호** 춘천,바00012 **발행인** 이수형, 김훈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김훈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솔, 박익수 **편집 · 발행**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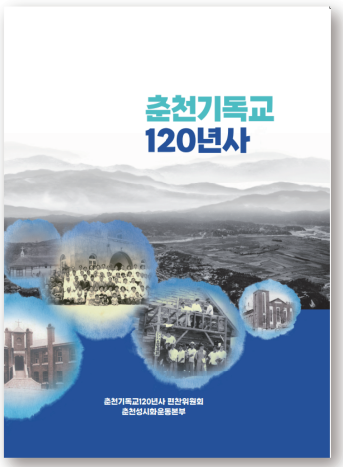
춘천기독교 역사 - 춘천기독교 120년사
강원도 성지순례 - 강원도 인문학 산책

문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010-9698-2993)



기독교가 안내하는 강원도 여행
강원도 인문학 산책

강원도 전역의 성지와 여행코스들을 추천하고 있다.
사진과 해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춘천기독교 12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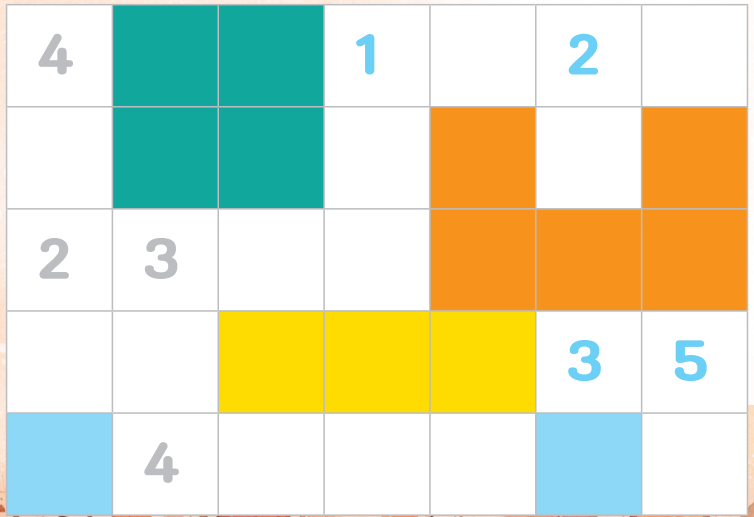
1권, 2권으로 되어 있으며 120년의 춘천기독교회와
기독단체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다.

성시 10월/성경퍼즐퀴즈 : 가족들과 함께 맞춰보세요

참여방법

11월 15일까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자 5명에게 소정의 상품(상품권 1매)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010-9698-2993)

지난 호 정답자 윤*영, 조*순



*** 가로 힌트**

1.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는?(골4장)
2.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분?(골4장)
3. 하나님의 궤를 만져 죽은 사람은?(삼하 6장)
4.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마10장)

*** 세로 힌트**

1. 단을 쌓고 여호와살롬이라한 곳은?(삿6장)
2. 열병에 걸린 장모를 둔 사람은?(눅4장)
3.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간사람은?(행11장)
4. 석 달간 법궤를 두었던 집은?(삼하6장)
5. 127세를 살고 간 사람은?(창23장)